

대인예술시장 지키는 청년작가 예술 아지트



광주시 동구 대인예술시장 내에 자리한 청년예술단체 '지구발전 오라'의 전시장. 청년작가 개인전, 타지역 교류전 등을 개최하고 있다.

2017 文化로 물들다

8 대인시장 '지구발전 오라'

전시공간 '다오라' 사무공간 '더오라'
대표 2명·입주작가 7명 작품 활동
개관 2년...꾸준한 전시·비평세미나
"시장내 작가 작업실 줄어 안타까워"



왼쪽부터 박화연·장현우 작가, 김택현PD, 김영희 대표가 사무공간 '더오라'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대인예술시장을 걷다보면 낯은 무용교습소(동구 대인동 313-4번지) 간판이 보인다. 폭 1m 좁다란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50평 규모 넓은 공간이 나타난다.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동고동락하고 있는 '지구발전 오라'(Development Area Aura·다오라)다. 지난 2015년 1월 만들어진 '다오라'는 현재 문화기획자, 청년작가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다. 2008 광주비엔날레 '북덕방 프로젝트'로 시장과 인연을 맺었던 김택현(37) PD, 김영희(여·32) 대표가 장소를 무상지원받아 만들었다. 초기 5명이었던 입주작가들은 무명이 더 늘어 현재 강지수, 박화연, 박용규, 배수민, 오용석, 정유승, 장현우 등 7명이 머물고 있다.

공간은 전시장, 작가 작업실, 작품보관실, 아카이브 공간, 공동 작업장, 게스트하우스 등이 자리한 '다오라'와 사무공간 '더오라'로 구성된다. 80년대 지어져 무용교습소, 목욕탕 등으로 사용됐던 '다오라'는 미로처럼 펼쳐진 통로를 따라 공간이 이어진다. 벽면 곳곳에 꽃, 사람, 풍경이 그려져 있는 등 다오라를 방문한 작가들이 아가자기하게 꾸며놓은 점이 눈길을 끈다.

약 30평 규모 전시장에서는 지난 2년간 개관전 '#D.A.오라', 독립큐레이터그룹 'OverLab'이 주최한 '동기부여 Motivation', 청년작가 개인전 등이 꾸준히 열리고 있다. 입주작가 뿐 아니라 타지역 작가 대상으로 다양한 전시를 개최한다. 오는 3월에는 입주작가 강지수·장현우씨가 2인전을 열기 위해 한창 작업중이다.

2인실 3개, 4인실 1개 규모 게스트하우스는 타지역 작가들이 주로 사용하고 사무공간에서는 작가 대상 교육프로그램, 세미나 등이 열리고 있다. 가장 인기 좋은 장소는 옥상이다. 무등산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은 전시 뒷풀이로 사용되는 등 지역예술가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다오라를 기획한 김택현 PD는 "청년작가들이 모여 교류하고 함께 발전하자는 취지로 공간을 조성했다"며 "현재는 지난 2년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씩 틀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소개

했다. 다오라는 신진작가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다. 가장 막내인 장현우(여·25)여 작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작업실을 마련하기 어려웠는데 마침 다오라에 들어오게 돼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초기부터 참여했던 박화연 작가도 "작가들이 모여다 보니 서로 더 좋은 작품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대표는 "다오라에서는 어떻게 작가생활을 이어나가야될지 막막한 신진작가들이 선배들에게 경험을 전수받고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며 "특히 20대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광주문화재단과 연계한 본격적인 레지던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타지역과의 교류도 신경 쓸 예정이다. 신진작가들에게는 꼭 필요한 작가 비평세미나를 꾸준히 열고 있는 이유다. 또한 부산 예술가모임 '공간함'과 함께 계간 비평잡지 '포스트'를 6호 발간하며 현시대 예술현안을 짚고 있다.

현재 대인시장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작가들이 빠져나가고 불거져 중 하나였던 벽화가 안전문제로 철거되며 점점 예술성이 사라지고 있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다오라에게도 지난해 말 위기가 찾아왔다. 원래 4년6개월간 건물 무료임대를 약속받았지만 건물주가 임대료를 요구한 것. 응하지 않을거면 퇴거하라는 내용증명까지 받았다. 현재 변호사와 협의를 하고있는 상황이다.

김PD는 "한편 40여곳에 달했던 시장내 작가 작업실이 현재는 10곳도 안된다"며 "임대료 상승과 더불어 공동프로젝트가 없으니 작가들이 더이상 시장에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인시장은 지역작가 대부분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예술가들이 북적이는 대인시장을 꿈꿉니다. 우리(다오라)마저 무너지면 시장내 예술 공동체가 사라져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운영할 생각입니다." 문의 010-9433-419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옛 고향 향수 달래기...김성우 개인전

28일까지 전남대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 갤러리

새, 달, 산 등 자연을 소재로 옛 추억을 작품에 담고 있는 김성우 작가가 28일까지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한글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선·면·색으로 한글을 조형화한 작품 등 20여점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강진에서 근대문화유산을 전시하는 '와보랑개 박물관'(www.와보랑개.kr)을 운영하면서 전통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작업을 펼치고 있다.

'그때 그 시절' 시리즈는 옛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굵은 선으로 그린 외곽선에 초가집, 새를 그려놓아 향

토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화면을 단순하게 분할해 여백의 미가 느껴지고 빨강, 파랑 등 원색을 사용해 조형미를 더했다.

또한 지계를 짙어진 남성과 소쿠리를 머리에 인 여성, 여성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이, 훌훌 따라가는 강아지 등 동화 삽화같은 연출도 보여준다.

강진 출신 김씨는 개인전 4회, 단재전 50여회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남부현대미술협회, 광주·전남 현대작가 미술인 연구모임 '이팅', 드로잉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530-55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그때 그 시절'

전남문화관광재단 '청춘마이크' 청년예술가 모집

내일 농성동 문화센터 설명회

청년예술가들이 관객들과 호흡하며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전라권(광주, 전남·북) 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연 출연 기회 제공과 함께 공연비를 지원하는 '2017 문화가 있는 날-청춘마이크' 사업에 참가할 청년예술가를 모집한다. 재단에 올해 전라권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오는 8일 오후 3시 광주 농성동 문화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청춘마이크' 사업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 청년예술가들이 거리·전통시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는 행사로 권역별로 8~9

개 팀씩 총 24개 공연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예술가들이 1~4인 이내 소규모 팀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공연 분야는 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 다원예술(대중음악, 인디밴드, 비보이댄스, 마임, 마술 등 공연) 등이다.

선발된 팀은 5~6회 공연비를 지원받게 되며 우수 참가자를 선정해 '청년예술가 상'을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2018년 '청춘마이크' 사업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마감은 오는 22일까지, 이메일(limchin@hanmail.net)을 통해 지원신청서와 3분 이내 공연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1-280-582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아프리카 쇼나조각

안근호 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단, 카탈로그 및 후원금 18)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7년 2월호

1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탐욕이 울바름의 덕목 혼드는 시대

宗家를 다시 본다

-뿌리의 정신 잇고 사람의 도리 살행하는 고결한 가계
-장흥 고씨 의열공파 14대 종손 고영준씨
-울산 김씨 문정공 대종가 노중부 황주남, 소중부 박치임씨
-하회마을을 풍산 류씨 입암고택과 충효당

문화 첫보기

'월계수 양복점' 못지않은 자긍심 불함 속가업 잇는 이들

소문난 예술교육연장을 찾아서 ⑨

예술적 온고지신 플랫폼 빅토리아 & 엘버트 미술관

노중준의 꿈의 여행지

실용적이면서 예술적인 디자인의 나라, 스웨덴

국가어항 르네상스 프로젝트 ④

칠산바다로 나아가는 거점, 영광 개마항

기생충 연구와 글로 공감시대 만든 서민 교수

대한민국 석목명인(2)

술과 함께 51년, 정성으로 익어가는 전통술 이강주 명인 조정형

트렌드 따라잡기(2)

라이프 DIY, SNS야 비법을 알려줘! 요리, 패션, 여행의 최적 콘텐츠 참고

아트 뉴스 & 리뷰

45년 연극인 박윤모의 자기고백 '인극' '동행'

전시리뷰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있으라 이준석 '오월 그림전'

남도 美味樂

동학정신 새기며 즐거운 토요일로 정통삼합, 바지락 외무점... 장남간지 탐진간지 물 축제, 역사재... 산전에서 '홍' 남치내